사무엘하 3. 아브넬의 망명 (삼하 3 장 1-39 절)

들어가기

본문은 유다 왕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진 반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집은 약해지다가 결국은 ‘이스보셋’의 군대장관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에 불화가 생기면서, ‘아브넬’이 ‘다윗’에게 망명하게 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아브넬’은 ‘다윗’을 떠날 때 ‘아사헬’의 형이자 ‘다윗’의 군대장관인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며,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어 ‘아브넬’의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1. ‘다윗’의 집은 점점 더 강하여졌으나,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약하여졌습니다. (1-5 절)

- ‘다윗’과 ‘이스보셋’의 시적을 생각해 보자! -> 분명 1/10 의 차이로 외적으로 비교되지 않음!
 ☆ 그러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에 달려 있음을 깨달아야만 할 것!
- 다윗은 ‘헤브론’에서 몇 명의 아들을 낳았는가? (2-5 절)
 ☆ _____명의 아내에게서 _____명의 아들을 낳았음
 ☆ 그럼 이런 ‘일부다처제’는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가?
 - 창 2:24 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 가정의 원리 -> 한 남자에 한 아내
 - 결국 다윗도 여러 아내로부터 태어난 자식들이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경험하게 됨.
 - 예를 들면..., 첫째 ‘암논’은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하고, 셋째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 후 반역하고, 넷째 ‘아도니아’는 ‘솔로몬’과 왕위 쟁탈로 다툼...,
 ☆ 곧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

2. 사울의 집,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권력자는 ‘이스보셋’이 아니라 ‘아브넬’ 이었습니다. (6-11 절)

- 1)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사울의 첩 ‘리스바’와 통간한 것에 대해 강하게 책망하였습니다. (7 절)
 ☆ 당시 첩은 그 주인의 합법적인 재산이었고, 그 재산은 주인의 후계자에게 상속되었음! -
 - 참고: 어떤 학자 = 당시 왕의 첩은 종종 왕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쓰임 받기도 했으므로, ‘리스바’를 ‘이스보셋’의 보모처럼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음.
 ☆ 그런데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통간을 했다는 것은 왕의 권위에 도전하며 왕좌를 노리는 반역행위와 다름없는 큰 악행이었던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이 이것을 잘 알면서도 ‘사울’의 첩 ‘리스바’를 탐했다는 것은 당시 그의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추측할 수 있음.
 - 2) ‘이스보셋’의 책망을 들은 ‘아브넬’은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8 절)
 ☆ 8 절을 주목하면, 1) 그는 심히 분노하였고, 2) ‘이스보셋’에게 강하게 따졌다는 것!
- ‘이스보셋’에게 따진 내용은?
 ①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따짐.
 - ‘내가 ‘다윗’의 집에 속한 개인가?’ 그렇게 너에게 멸시를 받아도 될 사람인가?’ 따짐!
 - 이것은 분명 자신의 위치와 신분을 제대로 알지 못한 교만함에서 나오는 말!

- ② ‘내가 너를 다윗의 손에서 구하여 왕이 되게 했다!’ 고 따짐.
 - 그의 교만은 ‘이스보셋’의 왕권을 그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한 것!
- ③ 그럼 왜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는가?
 -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내용’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 (9 절)
 - 10 절,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 이는 곧 그가 분노하여 자신을 책망한 ‘이스보셋’을 훈계한 것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자신의 범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

- 3) 결국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분노에 대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1 절)
- ✧ 그럼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 ✧ 1 차적으로 ‘아브넬’이 ‘두려워서’ 겠으나, 그 두려움은 실제로 그의 말이 다 맞기 때문!
 - 곧 ‘이스보셋’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는 것!

3. 분노한 ‘아브넬’은 여기서 참지 못하고, ‘다윗’을 찾아가 망명을 요청하였습니다. (12-21 절)

- 1) ‘아브넬’은 다윗에게 ‘사자’를 보내어 망명을 청하였습니다. (12 절)
- ✧ ‘아브넬’은 이때 자신이 ‘다윗’을 도와 온 이스라엘을 얻도록 해주겠다고 언약을 제의함!

■ 특별히 여기서 ‘아브넬’의 말을 주목해 보라! (12 절)

- ①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이까?’
 - 누구의 것인가? -> ‘아브넬’의 관점은 _____ 것에서 이제는 _____ 것으로!
 - 그러나, ‘다윗’의 관점은 항상 _____ 것!
- ② ‘내 _____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 여전히 정신차리지 못하고 자신이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었듯이, 이번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 수 있다고 착각!
 - But!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오른 손이** 자신을 지키시고 불드심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 2) 이때 ‘다윗’은 ‘아브넬’에게 한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13-16 절)

✧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는 것.

■ 그런데 왜 많고 많은 조건들 중에 하필 ‘미갈’을 데리고 오라는 조건을 걸었을까?

- ✧ 우선 ‘미갈’은 공식적으로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고, ‘사울’에게 억울하게 빼앗긴 아내
- ✧ 학자들- 정치적/율법적 정통성을 회복 + 앞으로 통일된 이스라엘을 이끌겠다는 의지표명!

■ 그런데 이때 ‘미갈’은 ‘발디엘’과 재혼하여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

- ✧ 15,16 절, ‘발디엘’은 강제로 아내 ‘미갈’을 빼앗기고, 바후림까지 울면서 따라감!
- ✧ 그럼 당시 ‘발디엘’의 편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는가?

☆ 여기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

- 그의 결혼생활은 결코 합법적인 결혼생활이 아니었다는 것! -> 곧 불법적인 동거!!
- 곧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취하여 즐거워하는 기쁨은 비록 일시적인 기쁨과 행복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나 결코 영원한 기쁨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함!
- 그렇게 주어진 기쁨은 결국은 더 큰 불행을 가져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할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젠가는 사라질 세상의 것들에 욕심을 내고, 그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진실로 취해야만 할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기쁨들과 상급들을 찾고 얻으려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3) 이후 ‘아브넬’은 각 지파의 장로들과 베냐민 사람들을 만나 설득하였습니다. (17-19 절)

- 얼마나 정치적으로 유능한 사람인가! -> 특히 베냐민 사람들을 찾아간 것! -> Why?

■ 여기서 18 절 ‘아브넬’의 말을 주목!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 언제 하신 말씀인가? -> 이미 오래 전에 사울과 다윗이 살아있을 때 주신 말씀!

☆ 그런데도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큰 결심을 하고 일어섰다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

- 곧 전에는 찾지도 않던 하나님의 뜻을 막상 자신이 어렵고 곤란한 처지에 놓이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운 행동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가증스러운 행동이었다는 것!

4) 그러나 ‘다윗’은 이런 ‘아브넬’의 망명을 잔치를 열어서 환영하며 맞아 주었습니다. (20-21 절)

☆ 그럼 당시 ‘다윗’이 ‘아브넬’의 상황이나 속내를 몰랐을까?

☆ 곧 ‘다윗’은 지난 날의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그를 긍휼함으로 받아주었다는 것.

■ 이때 21 절을 주목해 보면,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 여전히 자신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다스리게 할 수 있다고 착각..

☆ 한 신학자 - ‘모든 인간(죄인)은 다 모든 사건과 사람을 자신의 안경만을 통해 보고 판단하려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며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4. 들뜬 맘으로 돌아가던 ‘아브넬’은 갑작스럽게 쫓아온 ‘요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22-27 절)

1) ‘아브넬’이 ‘다윗’에게 망명을 청할 때, ‘요압’은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22 절)

- 2) ‘요압’은 ‘다윗’이 ‘아브넬’을 무사히 돌려보낸 것은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따졌습니다. (24 절)
 ✧ 그러나 그의 지적은 ‘다윗’을 보호하고자 하는 충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동생의 죽음에 대한 복수심에서 출발한 것!
 ✧ Why? -> 만약 그가 ‘충심’으로 다윗을 찾았다면, 우선 ‘다윗’과 ‘아브넬’의 만남이 무엇 때문인지? ‘다윗’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부터 물었어야만 했다는 것!

- 3) ‘요압’은 즉시 군사를 보내어 ‘아브넬’을 ‘헤브론’으로 데려와 ‘다윗’ 몰래 죽였습니다. (27 절)

종종 자신의 개인 감정에 휩싸여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의 장래를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5.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크게 애통해 하며, 최선을 다해 장례식을 치러주었습니다. (28-39 절)

- 1)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은 자신과 상관없는 일임을 선언하며, ‘요압’을 크게 저주하였습니다.

■ ‘요압’과 그의 집을 향한 ‘다윗’의 저주는 너무 심한 것이 아닐까?

- ①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동생 ‘아사헬’의 죽음에 대해 원수를 갚은 행위!
 -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동족간의 원수를 갚는 행위를 금지 시키셨다는 것.
 레 19:18,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 ② 더군다나 ‘요압’은 ‘아브넬’을 조용히 **헤브론 성안으로** 불러 죽였다는 것!
 - 당시 헤브론 -> 유다 지방에 속한 **도피성!!**
 - 수 21:13,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이요,’
- ✧ 곧 ‘다윗’은 감정적으로 ‘요압’을 징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고의적으로 어긴 ‘요압’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율법대로 선포한 것임!

- 2)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온 백성과 슬퍼하며 그의 장례식을 최선을 다해 치러주었습니다.
 ✧ 특히 ‘다윗’은 ‘아브넬’의 상여를 따라가며 울었고, 해질 때까지 그를 위해 금식!
 ✧ 곧 그의 슬픔이 단순한 정치적인 쇼가 아니라 진심 어린 슬픔이었다는 것!

- 3) 이에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기뻐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다윗’을 지지하였습니다. (36 절)
 ✧ 분명 ‘아브넬’의 죽음은 ‘다윗’과 유다에 큰 위기의 상황!
 ✧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기의 상황을 기회로 바꾸어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따르게 하셨다는 것! (물론 여기엔 ‘다윗’의 진실함과 긍휼함이 보여졌기 때문임을 잊지말 것!)

- 4)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고 범죄한 ‘요압’을 징계할 수가 없었습니다. (39 절)
 ✧ 아직 ‘다윗’에게 모든 권력이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
 ✧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성급하거나 무리하게 움직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음.